

#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은주<sup>§</sup> · 정문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sup>§</sup> 교신저자

임은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번지  
e-mail: iej1@hotmail.com  
tel.: 02-935-4300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며, 그 경로가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천안에 있는 22개 상담센터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에서 만 7세 아동 201명(남아 132명, 여아 69명)과 그들의 부모 201쌍이었다.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 발달 척도, 한국 사회성 기술 검사,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을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 경로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동일하였으며, 수용-표현 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 집단 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사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성 기술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없었다. 셋째, 아동의 언어적 기능은 사회성 기술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논의 및 결론:** 의사소통장애 아동은 말-언어 문제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언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성 기술 부족 및 문제행동 발현에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와 연결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10;15:79-93.

**핵심어:** 의사소통장애,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아버지 양육태도, 어머니 양육태도,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 I. 서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심리·정서 및 행동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합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내재화되거나 외현화된 사회 및 정서적 역기능을 지칭하며, 그 종류나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정문자, 1988). 일반적으로 아동 문제행동은 자폐나 소아 정신분열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발달상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나 일반 아동에

서도 다양한 문제행동이 관찰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오경자(1991)는 전체 아동의 10% 정도가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정신과적으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발달 상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일수도 있다. 특히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위축, 함묵,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 성인기까지 이어져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논문은 제1저자의 박사학위 논문(2010)을 요약한 것임.

(Cohen, 2001).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주로 아동요인과 가정 요인으로 구분된다. Kauffman(1993)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생물학적인 요인(뇌손상, 뇌기능 장애, 영양장애, 신체적 질병), 가정요인(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요인(학업부진, 적응) 그리고 문화적요인(대중매체, 동료 집단, 이웃, 도시와, 인종문제, 사회계층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Rutter(1980)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간의 부적응,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아버지의 범죄경력, 어머니의 정신병력 등을 제시한 반면, Cohen(2001)은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을 지적하였다.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은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사고, 학습, 사회적 관계를 여는 창이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경험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심각한 부적응이나 문제행동까지 일으킨다(Audet & Ripich, 1994; Cantwell & Baker, 1991; Cohen, 2001; Gallagher, 1999; Owens, 2004). 내적 요인 중 사회적 능력에 관하여는 사회성 기술의 저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Cohen, 2001). 특히 언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어려움은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사회성 기술의 발달 및 문제행동까지 영향을 미쳤다(Dodge et al., 1986; Fujiki et al., 1999). 언어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에 실패하게 되며, 상대방과의 상호 교류가 중단된다. 결국 사회성 기술의 저하는 아동의 위축, 고립, 공격성 등 문제행동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가정변인으로 부모 양육태도 관해 살펴보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가족이 일반 가족에 비해 사회성, 이상과 목표, 응집력, 표현력, 민주적 태도가 더 낮으며 스스로 덜 양육적이라고 보고하였다(Carson et al., 2007; Carson et al., 1999; Hammer et al., 2001). Honig & Park(1988)에서는 일반아동의 아버지의 24~2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한 반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아버지는 45~57%가 스트레스를 보고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압력이 많고 아버지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언어지체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을 개인 내적인 변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가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 변인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단순한 두 변인의 상관 검증을 벗어나 여러 변인의 총체적 구조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Achenbach, 1991a)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유형의 경로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에 따른 집단 차이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사회성 문제나 행동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아동에 대한 적절한 중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변인 간의 상관관계로만 연구되었던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동에 대해 상호 관계 및 경로를 밝히고 모형을 정립하는 구조방정식 분석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 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힘으로써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계획과 실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갖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어떠한 경로

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

4.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 능력,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천안에 있는 22개 상담센터에서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만 4세에서 만 7세 아동 201명(남아 132명, 여아 69명)과 그들의 부모 201쌍이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버지용, 어머니용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담당 치료사 26명에게 아동에 관한 정보를 묻는 치료사용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부모 및 치료사가 모두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연구 특성에 따라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정만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선정은 첫째, 한국 언어치료전문가협회의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의사소통장애로 진단받고, 둘째,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진단기준에 따라 표현형 언어장애, 수용-표현 혼합형 언어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 기타 분류되지 않는 의사소통장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문제를 보이는 아동으로 하였으며 정신분열, 우울 등 DSM IV의 정신장애 진단을 동반한 경우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4-7세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선정한 이유는 학령기와 청소년 연구(Baker & Cantwell, 1987; Beitchman, Hood, & Inglis, 1990; Redmond & Rice, 1998)에 비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연구는 드물고 결과 역시 상이하며, 문제행동 발현 경로에 있어 언어적 기능의 역할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의 성 구성은 남아 65.7%, 여아 34.3%로 남아가 더 많았고, 연령별 구성은 4세가 26.9%, 5세가 27.9%, 6세가 22.4%, 7세가 22.9% (평균 연령 5.2세)로 연령별로 비슷하였지만 5세가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부모 모두 주로 30대와 40대였다. 부모의 학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주로 대졸(아버지: 58.7%, 어머니: 50.7%)이 많았다. 본 연구 대상 가정의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 수준 정도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유형에서는 표현장애가 4.5%, 표현-수용장애가 54.2%, 음운 장애가 15.9%, 말더듬이 18.9%, 기타가 6.5%로 표현과 수용 영역 모두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2. 연구 도구

#### 가.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1991)의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황혜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따뜻함과 애정요인을 측정하는 20문항, 공격성과 적대감을 측정하는 15문항, 무시와 무관심을 측정하는 15문항, 모호한 거부를 측정하는 10문항, 모두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평정척도이다. 보고된 하위 차원별 내적합치도는 .72~.95였으며, 본 자료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 나. 아동의 언어적 기능

언어적 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영태·성태제·이윤경(2003)이 표준화한 취학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실시하였다.

#### 다. 아동의 사회성 기술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Gresham & Elliot(1990)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한 윤치연(2008)의 한국 사회성 기술 검사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 13문항, 정서표현 15문항, 질서의식 6문항, 자신감 6문항의 4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내적합치도는 문제해결이 .91, 정서표현이 .90, 질서의식이 .76, 자신감이 .75이다.

#### 라. 아동의 문제 행동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 & Edelbrock(1983),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와 그의 동료들(오경자 외, 1997)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였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09년 1월 15일에서 8월 30일까지 8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천안에 위치한 22곳의 상담 센터를 선정하였으며 센터장과 담당 치료사에게 연구의 목적, 실시 시간, 소요 시간, 치료사용 질문지의 내용, 아버지용 질문지인 부모 양육태도 척도, 어머니용 질문지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부모 양육태도 척도, 아동 사회성 검사와 문제행동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의사소통장애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 내에 아동이 실시한 검사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를 치료사용 질문지를 통해 담당 언어치료사에게 전달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버지는 양육태도 척도 질문지에 답하였고, 어머니는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성과 문제 행동에 관하여 답하였다. 질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13부가 회수되어 3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율이 떨어지는 데는 아버지용 질문지 작성을 위해 질문지를 가정으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 등의 원인이 있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어머니용 질문지, 아버지용 질문지, 치료사용 질문지가 모두 회수된 총 20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결과 처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12.0과 Amos 5.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 모형을 검증하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고, 모형 검증을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일변량 및 다변량 정규성을 점검하여 왜도와 첨도 지수의 값이 극단적으로 큰지 확인하고, 정규 산포도 검정을 하여 실제 분포형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중공선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제행동에서 왜도 및 첨도가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3.0을 넘고 분포가 치우친 형태로 나타나, 공격, 비행,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의 5항목 데이터에 대해 로그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 Index)는  $\chi^2$ , 표준 카이제곱치( $\chi^2$ 을 자유도로 나눈 비), GFI (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또는 Non-Normed Fit Index; NNFI), PNFI(Parsimonious Normed-of-Fit Index), CFI (비교적합지수: Comparative Fit Index)를 고려하였다. 절대적 적합도인  $\chi^2$  는 표본 수에 민감하여 자료가 클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hi^2$  값과 자유도 간의 비를 이용한 표준 카이 제곱치가 더 선호되고 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chi^2$  값과 자유도 간의 비가 5 이하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Marsh & Hocevar, 1985; Tanaka, 1987). 그리고 이 비율이 3이하이면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를 나타낸다(조선배, 1996).

## Ⅲ. 연구 결과

###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측정된 변인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 및 실제 점수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 1>과 같다.

<표 -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하위변인	가능점수 범위	실제점수 범위	M	SD
아버지의 양육태도	온정/애정	20-80	20-62	33.3	9.6
	공격/적대	15-60	16-60	31.4	8.4
	무시/무관심	15-60	15-49	26.4	6.3
	모호한 거부	10-40	10-39	20.1	5.2
어머니의 양육태도	온정/애정	20-80	20-44	28.8	6.0
	공격/적대	15-60	19-51	32.6	7.2
	무시/무관심	15-60	15-38	24.8	5.4
	모호한 거부	10-40	10-40	20.9	4.5
언어적 기능	수용언어	15-84	20-84	48.5	15.9
	표현언어	15-84	15-84	45.4	16.1
사회성 기술	문제해결	13-65	13-61	36.5	9.6
	정서표현	15-75	15-72	44.0	11.8
	질서의식	6-30	6-30	18.8	5.2
외현화 문제행동	자신감	6-30	6-30	15.8	5.7
	공격	0-1.6	0-1.6	0.8	0.3
	비행	0-1.4	0-1.0	0.2	0.2
내재화 문제행동	우울/불안	0-1.4	0-1.3	0.6	0.3
	신체증상	0-1.3	0-0.8	0.2	0.2
	위축	0-1.3	0-1.3	0.6	0.3

## 2.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분석

### 가.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분석

<표 - 2> 외현화 문제행동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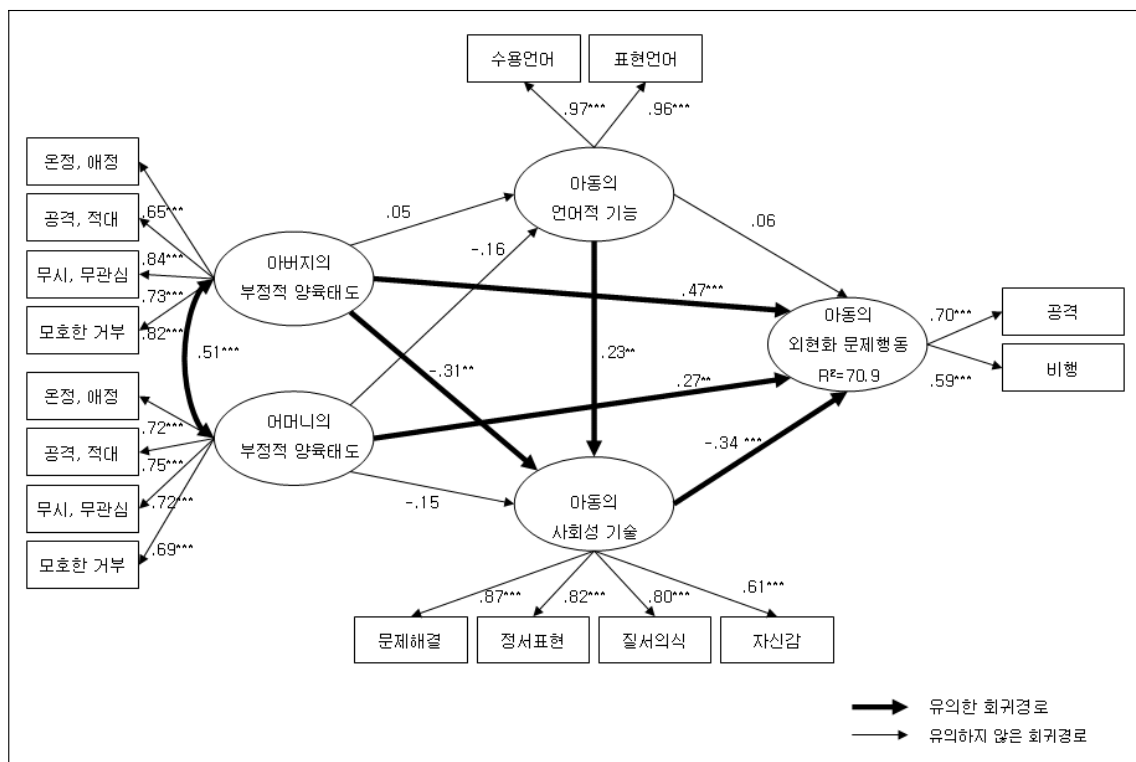
모형	$\chi^2$	df	$\chi^2/df$	GFI	TLI	CFI	PNFI	RMSEA
외현화 모형	287	94	3.0	.85	.86	.89	.67	.10

GFI=전체적합지수, TLI=타카-루이스지수, CFI=비교적합지수,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표 -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chi^2$ 값과 모델의 자유도 간의 비( $\chi^2/df$ )가 2.56으로 나타나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이외의 다른 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CFI 등이 .90을 넘는 수치를 보였으며 PNFI로 권장수준인 .60을 넘었다. RMSEA 역시 .08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그림 - 1>과 같다. 의사소통장애

에 아동에 있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7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로부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직·간접적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 간 직접 경로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직접경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 아동의 언어적 기능이 사회성 기술 능력에 미치는 직접경로,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변인 간 간접 경로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 능력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언어적 기능은 사회성 기술 능력을 거쳐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태도가 언어적 기능이나 사회성 기술을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 1>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나.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조절효과 분석**

사례수가 적어 다중 집단 분석이 어려운 표현형 장애와 기타 22명을 제외한 수용-표현형장애, 음운 장애, 말더듬의 세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 3> 장애유형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의 다중집단분석

모형	$\chi^2$	df	$\Delta\chi^2$	$\Delta df$	p
모형 1 비제약모형	709	276			
모형 2 측정가중치모형	779	298	70	22	.00
$\chi^2_{0.05(22)}$ 임계치			3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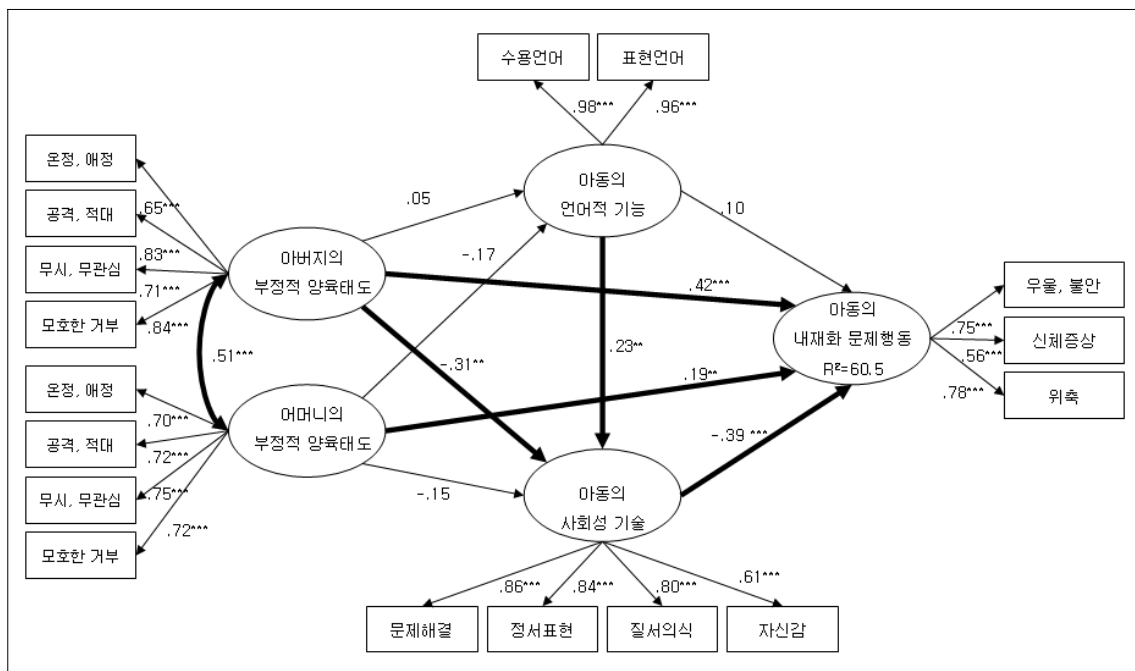
<표 - 3>과 같이 모형1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과 측정모형에서 집단 간 요인적재치가 동일하다고 제약한 측정가중치 모형(Measurement weights model)의  $\chi^2$  차이의 검정 결과, 변화량의 크기 70은 통계적으로  $\chi^2$  임계치 33.92를 상회하므로( $p < .05$ ), 집단의 요인 적재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다. 즉, 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변수 효과가 존재한다.

<표 - 4> 장애유형별 조절효과의 차이 분석

구조경로	집단비교	t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용-표현 vs. 음운	0.81
	수용-표현 vs. 말더듬	2.32*
	음운 vs. 말더듬	2.59**
아동의 사회성 기술 ->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용-표현 vs. 음운	-2.13*
	수용-표현 vs. 말더듬	-0.36
	음운 vs. 말더듬	-0.03

\* $p < .05$ , \*\* $p < .01$

각 변인에 대한 조절효과의 세부적인 장애 유형별 집단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 4>와 같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말더듬 집단과 수용-표현 장애 집단, 말더듬 집단과 음운 장애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용-표현 장애 집단과 음운 장애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 2>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 경로와 표준화 계수

### 3.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분석

#### 가.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분석

<표 - 5> 내재화 문제행동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hi^2/df$	GFI	TLI	CFI	PNFI	RMSEA
내재화 모형	275	107	2.57	.86	.89	.91	.72	.08

GFI=전체적합지수, TLI=타카-루이스지수, CFI=비교적합지수, PNFI=간명표준적합지수, RMSEA=근사평균오차제곱근.

<표 - 5>에 따르면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 가 2.57으로 나타나 비교적 잘 맞는 적합도 수준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에서 이론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론적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된 회귀 계수는 <그림 - 2>와 같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에 있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은 내재화 문제행동의 6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간 직·간접 경로는 외현화 문제행동 모형과 동일하였다.

#### 나.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의 조절효과 분석

<표 - 5> 장애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의 다중 집단분석 결과

모형	$\chi^2$	df	$\Delta\chi^2$	$\Delta df$	p
모형 1 비제약모형	841	321			
모형 2 측정가중치모형	960	345	119	24	.00
$\chi^2_{0.05(24)}$ 임계치			36.74		

다중집단분석 모형의 결과는 <표 - 5>과 같이 요인적재치에 차이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변수 효과가 존재한다.

<표 - 6> 장애유형별 조절효과의 차이 분석

구조경로	집단비교	t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용-표현 vs. 음운	2.26*
	수용-표현 vs. 말더듬	2.41**
	음운 vs. 말더듬	-1.16
아동의 사회성 기술 →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용-표현 vs. 음운	-4.25***
	수용-표현 vs. 말더듬	-3.09**
	음운 vs. 말더듬	0.64

\* $p < .05$ , \*\* $p < .01$ , \*\*\* $p < .001$

또한 <표 -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장애유형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IV. 논의 및 결론

### 1.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내적 변인인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언어적 기능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기능의 문제가 사회성 기술의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성 기술의 저하로 인한 상호작용 어려움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인지 모델에 근거하여 사회적 단서의 처리, 사회적 문제해결, 정서 확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예측은 모두 언어적으로 촉진된다고 밝힌 Gallagher(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의사소통장애 아동에게 있어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동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면 Brinton & Fujiki(2002)는 서로 낯선 아이들 끼리 놀이 그룹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관찰한 결과, 의사소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적었으며 또래와 대화빈도가 낮고 사회적 명령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그룹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집단에서 덜 수용되고 친구관계가 부족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반적 정신병리 발현 수준이 일반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en, 2001).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적 기능의 어려움이 아동의 사회성 및 행동에까지 미치는 영향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입증된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사회성 기술과 문제행동의 루트를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모형과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언어적 기능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아,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독립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기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언어적 기능의 저하가 아동의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방해하고, 행동적인 문제에까지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년에 걸친 언어장애 아동의 정신병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Beitchman, Peterson & Clegg(1988)는 언어적 기능이 독립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별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사회경제적인 수준, 부모의 결혼상황, 가족 크기 등 여러 변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기능과 문제행동에 관하여 Gurainick et al.(1996)는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위축과 사회적 행동을 본 결과 교사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평정하였고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순언어장애 그룹을 다시 심한그룹과 경한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위축에서 전체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심한 집단의 수용언어가 낮은 여아에서 경한 집단에 비해 위축 수준이 높은 사례가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능력의 저하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아동에 따른 개인차가 있으며 발달 상 언어적 능력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언어적 능력이 문제행동에 주는 직접 영향은 없으며, 사회성 기술이 매개가 되어 문제행동이 발현된다는 결

과를 지지한다. Rice, Hadley & Alexander(1993)에서 역시 사회적응 모델을 제시하며, 의사소통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비슷한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을 보이며, 문제행동은 언어적 제한으로 인한 적응과정이라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장애 아동이라고 하여 반드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의사소통장애의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당초 예상했던 통합 모형이 아니라, 사회성 기술이 언어와 문제 행동 사이에서 매개가 되는 중재모형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단순히 언어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성 문제나 문제행동 등 심리적 변인에 관하여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회성 기술 및 또래관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보다 실재적이고, 기능적인 치료 접근이 요구된다.

## 2. 아버지·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모형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온정 수준이 낮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하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일치된 결과가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 영역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낮고,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았다(Bronte-Tinkew et al., 2006).

둘째,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결과로 아버지의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약화시키고, 사회성 기술 저하로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사회의 대리인 또는 자녀사회화의 매개자(Gibert & Hanson,



1982; Parte, 1981)로서 자녀들의 행동 형성에 어머니나 또래 친구보다 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사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동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많은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강문희 · 정정옥 · 김승경, 2006; 손남숙 · 이숙희, 2008).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 양육태도가 사회성 기술을 통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경로는 아버지와는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성 발달에 주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정현희 · 최경순, 1992; Parte, 1981). 이는 연구 대상자의 특수성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사회성 발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임상센터를 이미 다니고 있고 대부분 어머니와 부모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상담 시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양육태도가 언어적 기능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양육태도가 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언어적 기능 역시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언어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언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부모의 언어적 표현이 많고, 반응적이며 덜 지시적일수록 아동의 언어적 기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erk & Suhl, 1995; Owens, 2005). 또한 양육태도 자체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반적인 발달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 연구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태도와 친밀성은 아동의 인지, 신체, 언어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도가 언어적 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이 언어적 기능 저하에는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 변인이

외에 다양한 개인 내적 원인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상은 의사소통장애 전체였으므로 특정 장애 유형 내에서의 언어적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적 기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3.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어머니 · 아버지 양육태도가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에서 경로에 따라 장애 유형의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첫째,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성 기술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에는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용-표현 장애에서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음운 장애 집단 보다 유의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일반적으로 수용-표현 언어장애 아동에서 음운 장애 아동에 비해 사회성 기술의 저하와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Cantwell & Baker, 1991; Cohen, 2001). 음운 장애 아동은 주로 발음에만 문제가 있어, 언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이에 따라 언어적 기능의 영향을 받는 사회성 기술 역시 비교적 양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가적인 집단분석 결과 사회성 기술, 외현화 · 내재화 문제행동 영역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즉 수용-표현 장애 집단이 음운 장애 집단 보다 사회성 기술은 더 낮고, 외현화 · 내재화 문제행동은 더 많이 나타난다. 사회성 기술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표현언어 장애 집단에서는 사회성 기술이 외현화 문제행동( $\beta = -.53, p < .001$ ), 내재화 문제행동( $\beta = -.52, p < .001$ ) 모두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기술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28.5%를, 내재화 문제행동의 27.6%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음운 장애 집단에서는 사회성 기술이 문제행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음운 장애에서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사회성 기술의 저하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음운 장애 아동

은 상대적으로 사회성 기술은 양호하지만 발음의 문제로 인하여 심리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Beitchman et al., 2001; Bernthal & Bankson, 1998; Cohen, 2001). Shriberg & Kwiatkowski(1994)는 음운 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예민하여 쉽게 상처 받기 쉽다고 하였으며, Parlour & Broen(1991)은 정상 아동과 음운 장애 아동은 유사한 가족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음운 장애 아동의 가족의 경우 보다 더 신체적 체벌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음운 장애 집단에서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사회성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주는 영향에서는 추가로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말더듬 집단의 사회성 기술이 좋은데 비해, 오히려 내재화 문제행동은 더 높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집단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즉 말더듬에서 주요한 심리적 문제는 우울, 불안과 위축 등 내재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말더듬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에 대해 지적인 선행연구들(Altholz & Golensky, 2004; Crowe, 1997c; Guitar, 1998)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말더듬 중재 시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 간, 음운 장애와 말더듬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주는 영향에 있어 말더듬 집단과 다른 의사소통장애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수용-표현 집단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15.2%( $\beta = .39, p < .001$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운 장애와 말더듬에서는 어머니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즉 전반적인 어머니 양육태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나(4.2%), 아버지의 영향(15.3%) 보다는 작으며,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말더듬의 주요 이론인 초기 진단이론(diagnosogenic theory)에서는 말더듬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나, 부모 반응 외에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 있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말더듬에서는 아동의 비유창한 정도, 듣는 이의 반응, 그리고 아동 자신

의 민감성이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Guitar, 1998). 또한 말더듬의 부모가 일반 부모와 다르지 않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임은주 외, 2008; Kloth et al. 1998; Miles & Ratner, 2001),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이 전적으로 어머니 양육태도 때문이라 할 수 없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Miles & Ratner, 2001).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 아동의 어머니가 일반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더 까다로우며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이러한 특성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은주(2005)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군 내에서 어머니 양육태도를 보았으므로, 추후 일반아동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버지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수용-표현 장애와 음운 장애, 수용-표현 장애와 말더듬 집단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표현집단에서는 아버지 양육태도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2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 = .45, p < .001$ ), 음운 장애( $\beta = .26, p > .05$ )와, 말더듬( $\beta = .03, p > .05$ ) 집단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나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마다 차이가 있고, 말더듬 집단에서 영향이 가장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말더듬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들과 일치한다(Altholz & Golensky, 2004, Crowe, 1997). 의사소통장애 아동 중재 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아동의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변인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대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언어적 기능과 사회성 기술 등 다양한 변인을 함께 다루어야 하겠다. 그동안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정신병리와 문제행동에 관하여는 장애 유형별 특징을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Cohen, 2001). 말더듬에 관한 연구도 일반 아동과 비교하거나 말더듬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Guitar,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집단 내에서 장애 유형별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임상센터에 내원한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정도와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치료 접근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과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언어적 기능, 아동의 사회성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아동의 문제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나타났는데, 임상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모형화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언어적 기능 저하가 아동의 사회성 기술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까지 확인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장애 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특성에 대해서 알고, 이에 적절한 접근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본 연구의 통합적 관점은 의사소통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태도이나 아동의 언어적 기능, 사회성 기술, 문제행동을 구조모형 안에서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소통장애 아동의 증재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정정옥 · 김승경(2006). 『영유아 발달의 이해』. 서울: 신정.
- 김영태 · 성태제 · 이운경(2002).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서울: 한솔교육.
- 손남숙 · 이숙희(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만 4세-6세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아동교육학회지』, 15(2), 49-77.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서울: Huno consulting.
- 윤치연(2008). 『한국 아동 사회성 기술 검사』. 서울: 테스피아.
- 이은주(2005).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주 · 조수영 · 차인숙(2008). 말더듬 아동의 발달 및 어머니 성격특성. 『육아정책연구』, 2(1), 89-114.
- 정문자(1988). 아동의 문제행동. 제 10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정현희 ·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조선배(199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의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ltholz, S., & Golensky, M. (2004). Counseling, support, advocacy for clients who stutter. *Health and Social Work*, 29(3), 197-205.
- Audet, L., & Ripich, D. (1994). Psychiatric disorders and discourse problems. IN D. N. Ripich & N. A. Craghead (Eds.), *School discourse problems* (pp. 191-227). Sandiago, CA: Singular Publishing.
- Baker, L., & Cantwell, D. P. (1987). A prospective psychiatric follow-up of children with speech/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546-553.
- Beitchman, J. H., Hood, J., & Inglis, A. (1990). Psychiatric risk in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 283-296.
- Beitchman, J. H., Peterson, M., & Clegg, M. (1988).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 and psychiatric disorder: The relevance of family demographic variabl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8, 191-207.
- Beitchman, J. H., Wilson, B., Johnson, C. J., Atkinson, L., Young, A., Adlaf, E., Escobar, M., & Douglas, L. (2001). Fourteen-year follow-up of speech/language-impaired and control children: Psychiatric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 75-82.
- Berk, L., & Suhl, S. (1995). Maternal interaction, private speech, and task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45-169.
- Bernthal, J. E., & Bankson, N. W. (1998).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Boston: Allen and Bacon.
- Brinton, B., & Fujiki, M. (2002). 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profound hearing loss. In P. K. Smith & C. H. Heart(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588-603).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Bronte-Tinkew, J. B., Moore, K. A., & Carrano, J. (2006).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intact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850-881.
- Cantwell, D. P., & Baker, L. (1991). *Psychiatric and developmental disorders i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arson, C. P., Carson, D. K., Klee, T., & Jackman-Brown, J. (2007) Self-reporte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temperament in families toddlers with and without speech-language delay. *Communication Dis-*

- orders Quarterly, 28(3), 155-165.
- Carson, D. K., Perry, C. K., Diefenderfer, A., & Klee, T. (1999). Differences i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language-delayed and language-normal toddlers. *Infant-Toddler Intervention: The Transdisciplinary Journal*, 9, 259-279.
- Cohen, N. J. (2001). *Language impairment and psychopathology in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 Crowe, T. (1997). Emotional aspects of communicative disorders. in T. Crowe(Ed.), *Applications of counsel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Baltimor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1-85.
- Fujiki, M., Brinton B., Morhan, M., & Hart, C. H. (1999). Withdrawn and sociable behavior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0, 183-195.
- Gallagher, T. M. (1999). Interrelationship among children's language,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9, 1-14.
- Gilbert, L., & Hanson, G. (1982). *Perception of parental role scales*. Columbus, Ohio: Marathon Consulting & Press.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itar, B. (1998).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urainick, M. J., Corner, R. T., Hammond, M. A., Hammond, M., Gottman, J. M., & Kinnish, K. (1996). The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Child Development*, 67, 471-489.
- Hammer, C. S., Tomblin, J. B., Zhang, X., & Weiss, A. L.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6(2), 185-205.
- Honig, A. S., & Park, K. (1988).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language competence among toddlers in French, North African, and African families in Fra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0, 31-49.
- Kauffman, J. M., & Landrum, T. T. (2009).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9th ed.) NJ: Prentice Hall.
- Kloth, S., Janssen, P., Kraaimaat, F., & Bruten, G. J. (1998). Child and mother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among high-risk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3, 217-230.
- Miles, S., & Ratner, N. B. (2001). Parental language input to children at stuttering onse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1106-1130.
- Owens, R. E. (200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oston: Allyn & Bacon.
- Parke, R. D., McDowell, D. J., Kim, M., Killian, C., Dennis, J., Flyr, M. L., & Wild, M. N. (2002).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41-167). Mahwah, NJ: Erlbaum.
- Parlour, S. & Broen, P. (1991). *Environmental factors in familial phonological disorders: Preliminary home scale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 Parte, R. (1981). *Fath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dmond, S. M., & Rice, M. L. (1998). The socioemotion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SLI: Social adaption or social deviance?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1, 688-701.
- Rice, M. L., Hadley, P. A., & Alexander, A. L. (1993). Social biases toward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s: A correlative causal model of language limitations.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445-471.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utter, M. (1980). *Developmental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Shriberg, L., & Kwiatkowski, J. (1994). Developmental phonological disorders I: A clinical profil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100-1126.

ABSTRACT

## Variables Related to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Eun Ju Im<sup>§</sup> · Mun Ja Jeo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inguistic function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 effects of their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ir behavior problems. Second, the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se effects differed as a function of the subtype of the children's communication disorder using the SEM path model.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32 boys and 69 girls, 201 children in total,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nd their parents. The children were between 4 and 7 years of age and were from the Seoul, Kyunggi, and Chun-an areas. To measure parenting ability, the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 was used. The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was used to determine the children's linguistic functions, and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social skills. The Parents Report Form of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was used to measure th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Results:** Whereas the paternal parenting attitude was shown to hav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maternal attitude has only direct effects. Children's linguistic functioning influences their behavior problems through their social func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childhood linguistic function based on communication disorder type. **Discussion & Conclusio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are likely to have numerous related problems. The social skills and behavior problems of these children should be of concern and an integral program should be provided.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10;15;79-93)

<sup>§</sup> Correspondence to

Im Eun Ju, PhD,  
Sambeul Language  
Cognition Center,  
4-5 Sanggye-dong,  
Nowon-gu, Seoul, Korea  
e-mail: iej1@hotmail.com  
tel.: +82 2 935 4300

**Key Words:** communication disorder, linguistic function, social skills, paternal parenting attitude, maternal parenting attitude,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

###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ltholz, S., & Golensky, M. (2004). Counseling, support, advocacy for clients who stutter. *Health and Social Work*, 29(3), 197-205.
- Audet, L., & Ripich, D. (1994). Psychiatric disorders and discourse problems. IN D. N. Ripich & N. A. Craghead (Eds.), *School discourse problems* (pp. 191-227). Sandiago, CA: Singular Publishing.
- Baker, L., & Cantwell, D. P. (1987). A prospective psychiatric follow-up of children with speech/language disorde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546-553.
- Beitchman, J. H., Hood, J., & Inglis, A. (1990). Psychiatric risk in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 This paper was summarized from doctoral dissertation of the first author Im(2010).

■ Received, January 20, 2010 ■ Final revision received, February 24, 2010 ■ Accepted, March 1, 2010.

© 2010 The Korean Academy of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http://www.kasa1986.or.kr>

-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 283-296.
- Beitchman, J. H., Peterson, M., & Clegg, M. (1988).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 and psychiatric disorder: The relevance of family demographic variabl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8, 191-207.
- Beitchman, J. H., Wilson, B., Johnson, C. J., Atkinson, L., Young, A., Adlaf, E., Escobar, M., & Douglas, L. (2001). Fourteen-year follow-up of speech/language-impaired and control children: Psychiatric outcom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 75-82.
- Berk, L., & Suhl, S. (1995). Maternal interaction, private speech, and task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45-169.
- Bernthal, J. E., & Bankson, N. W. (1998). *Articulation and phonological disorders*. Boston: Allen and Bacon.
- Brinton, B., & Fujiki, M. (2002). 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profound hearing loss. In P. K. Smith & C. H. Heart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588-603).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Bronte-Tinkew, J. B., Moore, K. A., & Carrano, J. (2006).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risk behaviors in intact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7(6), 850-881.
- Cantwell, D. P., & Baker, L. (1991). *Psychiatric and developmental disorders in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Carson, C. P., Carson, D. K., Klee, T., & Jackman-Brown, J. (2007). Self-reported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temperament in families toddlers with and without speech-language delay. *Communication Disorders Quarterly*, 28(3), 155-165.
- Carson, D. K., Perry, C. K., Diefenderfer, A., & Klee, T. (1999). Differences i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 in families with language-delayed and language-normal toddlers. *Infant-Toddler Intervention: The Transdisciplinary Journal*, 9, 259-279.
- Cho, S. B. (1996). LISREL structure equation model, Seoul: Youngji Publishers.
- Cohen, N. J. (2001). *Language impairment and psychopathology in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Thousand Oaks, CA: Sage.
- Crowe, T. (1997). Emotional aspects of communicative disorders. in T. Crowe (Ed.), *Applications of counseling in speech-language pathology and audiology*. Baltimor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Dodge K. A., Pettit, G. S., McClaskey, C. L., & Brown, M. M. (1986).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1-85.
- Fujiki, M., Brinton B., Morhan, M., & Hart, C. H. (1999). Withdrawn and sociable behavior of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s*, 30, 183-195.
- Gallagher, T. M. (1999). Interrelationship among children's language,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9, 1-14.
- Gilbert, L., & Hanson, G. (1982). *Perception of parental role scales*. Columbus, Ohio: Marathon Consulting & Press.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Guitar, B. (1998). *Stuttering: An integrated approach to its nature and treatment*,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Gurainick, M. J., Corner, R. T., Hammond, M. A., Hammond, M., Gottman, J. M., & Kinnish, K. (1996). The peer relations of preschool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Child Development*, 67, 471-489.
- Hammer, C. S., Tomblin, J. B., Zhang, X., & Weiss, A. L. (2001).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Disorders*, 36(2), 185-205.
- Honig, A. S., & Park, K. (1988). Family factors associated with language competence among toddlers in French, North African, and African families in Fra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0, 31-49.
- Hwang, H. J. (1997). The relation of children's emotional-behavioral problem and parents' acceptive-rejective rearing attitu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3), 331-350.
- Im, E. J., Cho, S. Y., & Cha, I. S. (2008). The study on development of stutteri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Child Care and Policy*, 2(1), 89-114.
- Jeong, H. H., & Choi, K. S. (1995). The relation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rearing and child's sex role, emotional reaction, pro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1), 33-47.
- Jeong, M. J. (1988). Behavior problem of children. The 10th Symposium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 Kang, M. H., Jeong, J. O., & Kim, S. K. (2006). *Understanding about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eoul: Sinjeong.
- Kauffman, J. M., & Landrum, T. T. (2009). *Characteristics*

-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9th ed.) NJ: Prentice Hall.
- Kim, Y. T., Seong, T. J., & Lee, Y. K. (2002).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PRES)*. Seoul: Hansol Education.
- Kloth, S., Janssen, P., Kraaimaat, F., & Brutton, G. J. (1998). Child and mother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stuttering among high-risk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3, 217-230.
- Lee, E. J.(2005)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udy of Temperament of Preschool Children Who Stutte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B., & Lee, H. R (2002). *Language Development* (6<sup>th</sup> ed.). Seoul: Sigma press.
- Miles, S. & Ratner, N. B. (2001). Parental language input to children at stuttering onse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4, 1106-1130.
- Oh, K. J., Lee, H. R., Hong, K. O., & Ha, E. H. (1997).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Seoul: Huno consulting.
- Owens, R. E. (2004). *Language Disorders: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Boston: Allyn & Bacon.
- Parke, R. D., McDowell, D. J., Kim, M., Killian, C., Dennis, J., Flyr, M. L., & Wild, M. N. (2002). Fathers' contributions to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C. S. Tamis-LeMonda & N. Cabrera (Eds.), *Handbook of father involvement: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41-167). Mahwah, NJ: Erlbaum.
- Parlour, S., & Broen, P. (1991). *Environmental factors in familial phonological disorders: Preliminary home scale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 Parte, R. (1981). *Fath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edmond, S. M., & Rice, M. L. (1998). The socioemotional behaviors of children with SLI: Social adaption or social deviance? *Journal of Speech, Language & Hearing Research*, 41, 688-701.
- Rice, M. L., Hadley, P. A., & Alexander, A. L. (1993). Social biases toward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impairments: A correlative causal model of language limitations.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445-471.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study of parental acce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utter, M. (1980). *Developmental Psychiatr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Shriberg, L., & Kwiatkowski, J. (1994). Developmental phonological disorders I: A clinical profile.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7, 1100-1126.
- Son, N. S., & Lee, S. H.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on social development of 4-6 years old children. *Journal of Future Child Education*, 15(2), 49-77.
- Yoon, C. Y. (2006). *Korean Social Skill Rating System*. Seoul: Tesspia.